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 교수·미술사가

박물관은 정치적 공간이라 할 수 없다. 정치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정의를 통해 보았을 때 그렇다. 근대 이후 박물관의 탄생은 언제나 정치적 목적을 따르고 있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으로서 루브르의 출범은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적 가치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영국이 자랑하는 브리태니커 뮤지엄 역시 대영제국의 식민지배의 이념적 가치가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

2020년대 박물관학을 위하여

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으로 1909년 창경궁에 문을 연 제실박물관은 위기에 처한 황실의 위상을 자국의 문화유산에서 세우기 위한 근대적 각성의 결과였다. 아쉽게도 그 노력은 외세의 침탈에 의해 변질되고 말았지만 정치적 공간으로서 근대 박물관의 첫 시도가 우리 손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물관을 정치와 연계해 이해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박물관의 본래적 기능이 정치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에 관한 정의에 박물관을 주제로 세워 본다면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박물관 정치란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문화유산을 통해 실천하는 일'이다. 21세기 박물관 활동은 동시대의

지식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980년대에 등장한 뉴뮤지올로지(New Museology)는 21세기 박물관학을 위한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피터 베고(Peter Bergo)에 의해 주창된 뉴뮤지올로지는 지배 이념과 지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박물관에 대해 비판하고, 인종·민족·다문화·타자 따위의 동시대 사회적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박물관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뉴뮤지올로지의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민지배 이념의 산실인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지역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식민지배의 고초를 겪으며 성장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 규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

들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는 주체의 맥락에서 벗어나 타자와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보편성이 주어진다. 이를 고려하면 뉴뮤지올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동참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2018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박물관 수는 1124개소에 이르러 지난 2019년 6월에는 2023년까지 186개의 박물관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제를 비롯해 조직과 제도의 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 21세기 지식문화 중심의 글로벌 경쟁시대에 슬기로운 박물관 정치의 대계를 세우는 일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사)한국박물관학회의 차기 회장으로서는 국내외 박물관학 연구단체들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문화유산을 통해 실천하는 일'에 함께 주시기를 합장하고 바란다.

열린마당

깨끗한 제주만들기, 편리한 쓰레기 배출부터



백승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대한민국 관광 1위 도시 제주는 예로부터 '청정'을 강조하며 수려한 자연 경관을 관광 아이টে็ม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게 하는 자연환경은 관광객들로 인해 매해 오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부담금 명목의 입도세를 받아 조정을 할 거기에 배치돼 있던 쓰레기 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대신 동네마다 클린하우스가 세워지고, 오일별

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한다. 도민에게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정작 관광객들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제도로. 당장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 배출이 어려운 데다가 봉투를 사서 쓰더라도 클린하우스 배출 시간이 아니면 버리기가 어려워 관광객들은 이동시간 내내 쓰레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자신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처리는 또 다른 골칫거리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도민도 관광객도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점에는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책임부담을 함께 지고 가기 위해서는 관광객도 도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정책이 우선 실행돼야 할 것이다.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이 동반된다면, 도민과 관광객 모두 기쁘게 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최장수 행정부지사 타이틀 눈앞에 두고...

전성태 행정부지사 명퇴신청 ○...최장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예고됐던 전성태 부지사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며 올 연말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할 예정이다. 전 행정부지사의 차기 행선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장 자리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최종 근무기간은 3년 1개월로 잠정 확정되면서 3년 3개월의 김한욱 전 부지사에 이어 두번째 장수 부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김태업 서귀포시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1월 15일 예정된 상반기 인사폭 및 내용에 이목이 집중. 조상윤기자

지, 시공중지 1필지, 건축중 1필지, 계약해지 4필지,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토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불확실한 상태. 제주도는 분양당시 1순위는 2순위 업종까지,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업종 확대방안도 마련. 송은범기자

클러스터용지 분양 확대

○...제주도가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 후 착공 및 입주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업 입지여건 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2일 발표. 현재까지 클러스터용지 이용상황은 민간분양 20필지 중 준공 1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제주시가 '2019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힐링&소통 워크숍'을 개최해 눈길. 지난 18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행사는 웃음치료 등 힐링 프로그램과 화합행사로 진행됐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고대모기자

사설

감귤값 회복 기미조차 안보여 큰 일이다

제주감귤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감귤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경락가격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본보가 잇그제 보도한 '서울 가락동시장을 가다'는 르포를 통해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귤 가격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가락동시장 (주)서울청과에서 만난 경매사와 중도매인들도 제주감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제주감귤의 경매가가 소과의 경우 5kg당 3500~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가락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감귤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유로 극조생 감귤의 품질 저하 문제를 꼽았습니다. 10월부터 나온 극조생이 단맛도 덜한데다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그 영향이 계속 미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맥을 못추고 있어 큰 일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비상대책으로 시장격리 등 유통조절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상품과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큰 2L(가로 길이 67~70mm)과 2S(가로길이 49~54mm) 규격의 소과를 시장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을 조절해 가격 상상을 유도한다는 것이지만 과연 얼마나 먹혀들지는 의문입니다. 올해 출하물량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가격 회복이 안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출하량 조절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경매사들의 지적처럼 맛없는 극조생을 출하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소비까지 부진한 상황이어서 감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제주감귤이 위기를 맞은 만큼 고품질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 해수면 가파른 상승, 남의 일 아니다

지난 30년 사이 제주해역 해수면 상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데다, 상승 속도도 점차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1989~2018년의 연안 조위 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 미래가 아닌 현실 문제로 다가섰음을 보여줍니다.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큼니다. 지구온난화는 바다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연안침식 등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심각성을 간과하기 십상입니다. 제주해역 해수면 상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가 빠르데도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실제 지난 30년간 제주 연안(북쪽 해역)과 서귀포 연안(남쪽 해역) 2곳의 해수면은 매년 연평

군 4.26mm씩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연평균 해수면 상승률(2.97mm) 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폭이 연간 2.0m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제주도는 더욱 가파른 상승을 나타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매해 4.41mm씩 상승 그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측지점별로도 제주의 해수면 상승률은 두드러집니다. 특히 제주 북쪽 해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5.43mm씩 상승해 우리나라 21개 해역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해역 해수면 상승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고
강성진(前 초등교장) 아버지 진주강공 동화(6·25 참전용사, 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2일 08시 2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23일(월)
▶발인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전 7시 4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자: 양지공원
아들 강성진 며느리 김정일
성식 문양희
성호 임인숙
성도(故) 김춘심
딸 강성녀 사위 김경철(故)
성자 김경구
성순 박용배
손자 강시권
시형 민철
※연락처: 강성진 010-3690-0787
강성식 010-5225-7189
강성호 010-3682-3604

부고
오상훈(제일한의원 원장) 아버지 군위공공 만표(국가유공자·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2월 22일 08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2월 24일(화)
▶발인일시: 2019년 12월 25일(수)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자: 양지공원
부인 강희영
아들 오상훈 며느리 김미정
차훈
딸 오유미 사위 현수송
승희 서종철
숙미 강창선
지은 강태경
상희 한정철
※연락처: 오상훈 010-2568-6166
현수송 010-3696-0506
강창선 010-8661-616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경년(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23일
남편 김진호
아들 김태연 며느리 강행실
아들 김태선 조순덕
아들 김태영 고신효
아들 김태경 김순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밀양박공 영호(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23일
부인 문영자
아들 박용수 며느리 김선희
아들 박창수 강경이
아들 박동희 사위 이선미
딸 박동희 사위 김용준

토지주(후손)를 찾습니다
성명: 강두현
주소(본적): 화북동 4207
선홍리, 회천동 일원에 강두현씨의 사정토지(분묘)가 있사오니 후손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13년 8월 사정토지 등록
-2014년, 2017년 후손들이 주소 등록 진행
-현 미등기토지
문의: 오세형 010-5531-553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신지 선홍리 용암동굴계 거문포로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안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당사에서 제조하는 펠렛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허가제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펠렛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중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정 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